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1. 대왕마을의 삶

성남 지역은 일찍부터 충절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여말 삼은, 두문동 칠십이현이 이 지역과 연고가 있고, 특히 김약시, 조건, 김자수 등은 공양왕을 폐하려 할 때 끝까지 반대하며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켜 이 지역의 충절의 상징이 된다. 이 중 조건은 두류산에서 청계산으로 옮겨 날마다 제일 높은 봉에 올라가 송악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다고 하니 그 충절의 유서 깊음을 알 수 있다.

성남 인근 지역에는 이들 충신 외에도 조선시대의 여러 문인현사의 묘가 있고 특히, 청계산 자락에 낀 대왕마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자손들을 포함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왕마을은 영조 36년, 1760년 경에는 경안, 오포, 도척, 실촌, 초월, 퇴촌, 초부, 동부, 서부, 구천, 중대, 세촌, 돌마, 낙생, 언주, 의곡, 왕륜, 월곡, 일용, 북방, 송동, 성관면 등과 함께 광주지역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돌마, 낙생, 세촌면과 함께 성남시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은 광주 지역 문화권에서 크게 경계 짓거나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왕면에 소속된 리는 노상리, 송현리, 사촌리, 둔촌리, 노하리, 고산리, 신곡리, 세천리, 지곡리, 율현리, 자양동리, 수동리, 궁촌수서동리, 일원동리, 둔전리, 등자리, 오야곡리 등이었는데, 헌종 12년 1846년, <남한지>에 의하면 세촌, 돌마, 낙생, 대왕이 상, 중, 하 중 중도에 포함되었으며 대왕면에는 십칠 개 동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 온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유 지명들과 그 속에 삼긴 삶의 편린을 유추해 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지켜 온 세거 성씨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왕마을의 문학

대왕마을 사람들의 의식은 그들의 문학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한 지역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구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지식인 계층과 서민의 문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계층의 문학은 특정한 인물을 선정하여 그의 지성과 문학을 검토하고, 기록을 남기기 않은 서민의 경우는 구전되는 구비문학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의식을 유추하기로 한다.

1) 대왕마을의 문인

이 지역에 연고를 둔 문사가 적지 않으나 당대의 명망이 높고, 역사적으로 행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문장과 시에 탁월한 인물로 주목받는 이가 있으니 곧, 조선 후기의 훌륭한 정치가인 금릉 남공철(1760-1840)과 여류 학자 강정일당(1772-1832)이 곧, 그들이다.

남공철은 정조의 사부(師傅)였으며, 문체 반정 이후에 순정(純正)한 육경고문(六經古文)을 써 당대 제일의 문장가로 평가받았다. 순조, 익종의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수하였고, 저서로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귀은당집(歸恩堂集)>, <금릉집(金陵集)>, <영옹속고(穎翁續藁)>, <영옹재속고(穎翁再續藁)>, <영은문집(瀛隱文集)> 등이 있다. 많은 금석문, 비갈을 남겼으며, 성남시 분당구 울동에 있는 부친 문청공(文淸公) 남유용(南有容)의 묘갈(墓碣)을 직접 찬(撰)하기도 하였다.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의 조상경신도비(趙尙綱神道碑), 남양주시 별내면의 남용익(南龍翼)과 남재(南在)의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서(書)하거나 전(篆)하였다.

강정일당은 정조와 순조 시대를 산 여성으로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각고의 노력으로 심오한 철학적 학문을 닦고 도덕을 실천한 인물이다. 유교 경전 연구 등으로 30여 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생전에 대부분 유실되었고, 사후에 남편 윤광연에 의해 일부가 수집되어 <정일당 유고>로 간행되었다. 이 유고집에는 시와 편지, 기문, 행장, 묘문 등의 글이 실려 있고, 부록에는 정일당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쓴 행장, 묘지문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인물의 행적과 문학을 살펴보자.

남공철(南公轍)은 1760년(영조 36) 한양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 1840년(헌정 6)에 기세하였다. 그의 자(字)는 원평(元平), 호(號)는 금릉(金陵), 사영(思穎), 이아도인(爾雅道人), 영옹(穎翁) 등이고, 당호(堂號)는 이아당(爾雅堂), 고동각(古董閣), 서화각(書畫閣), 서선각(書船閣), 전경재(篆經齋), 귀은당(歸隱堂) 등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아버지는 형조판서를 지낸 뇌연(雷淵) 남유용(南有容)이다.

그는 16살 되던 해(1775)에 고모부인 지소(志素) 김순택(金淳澤, 1714~1787)에게서 고문(古文)을 익혔다. 당시 고문의 대가인 창애(蒼厓) 유한준(俞漢雋, 1732~1811)은 그가 쓴 글을 보고 ‘소한유(小韓愈)’라 칭찬하였고, 황경원(黃景源, 1708~1787)은 “한유의 법도와 구양수의 의취가 있다”고 평했다.

21살 때(1780)에 국자시(國子試)에 합격하고 1784년에는 아버지가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음보로 세마를 제수받고, 산청과 임실의 현감을 지냈다. 1792년에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 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어 《규장전운(奎章全韻)》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정조에게서 지극한 우대를 받았다.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 운동에 김조순(金祖淳), 심상규(沈象奎) 등과 함께 지목되어 육경고문(六經古文)을 깊이 연찬함으로써 정조치세에 나온 인재로 평가받았다. 대사성으로 후진교육에 전념하였고, 순조 즉위 뒤에는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아홉 번씩

이나 이조판서에 제수되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807년에는 동지정사로 연경에 다녀왔고, 1817년에는 우의정이 임명되어 14년 동안이나 재상을 역임하고, 1833년에는 영의정으로 치하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소위 ‘연암그룹’ 이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교유는 남공철의 사상과 문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대중, 유득공, 박제가, 원유진 등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

그는 조선 전기로부터 전통적인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文)은 도(道)를 실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옛날과 지금은 도(道)가 다르다. 그 언사(言辭)도 일찍이 같은 적이 없으니 같다면 문장이 아니다. “옛날의 문을 배워야 한다” 는 어떤 이의 물음에 그는 “그대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옛날 문을 배울 수 있겠는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모두가 옛날의 사물이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문으로 표현하려 한다면 이는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 사람이라고 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화장을 시켜놓고 서시 같은 미인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에게 있어 문장을 쓰는 주체의 관심은 바로 ‘지금’ 과 ‘오늘’ 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창작 주체는 현실 세계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으로 사실주의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문이 곧 도이고, 도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충을 숭상했고, 은나라는 질을 숭상했고 주나라는 문을 숭상했다는 것을 모른다. 이는 모두 변화의 극치를 보여 준 것으로 하, 은, 주 세 나라의 전체 기간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에 비교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하기도 했다. 즉, 각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문학적 창작 소재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세상에 살면서 문을 배우려면 오늘날에 쓰일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자면 오늘날의 도로써 오늘날의 말을 나타내야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사물을 잘 나타내야만 한다. 만약에 옛사람만 찾으려 큰 소리나 치고 고원한 것에만 힘써 사실이 적어지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읽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세상을 의문하

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른바 문과 도가 나누어져 둘이 된 것은 바로 이때 때문이다. 무릇 옛것만 좋아하고 지금 것을 소홀히 하며, 고원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비근한 일을 천시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병통이다.” 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은 연암 그룹들의 기본적인 문학관으로서 좋은 문장의 기준은 바로, 오늘날 내가 사는 세상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수준이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먼 훗날 이러한 글을 고문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금(古今)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와 금인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시대적 구분임으로 우리는 바로 금에 충실함으로써 결국 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고원하게 되면, 현실과 멀어짐으로써 문은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형식적인 격식에 얽매어 있는 과문(과문)의 병폐는 아주 크다고 하겠다.

또한 그는 문장을 쓸 때 통변(通變)과 주기(主氣)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문장은 기(氣)를 주로 삼아야 하고, 법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육경(六經)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육경을 읽어 그 이치를 살펴야 한다. 육경은 도가 가득 모인 것으로 그 속에 폭 잠기고 깊이 탐구하여 거기서 얻은 이치가 내 속에 가득 밖으로 빛나게 해야 한다. 이로써 나의 기를 배양하고, 나의 기를 창달하게 한 뒤에 이를 문장으로 나타내면 문장에 기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기가 나타나게 된다” 고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도학자이나 경세가, 문장가들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그는 육경에 담긴 기를 체득하는 것을 양기(養氣), 도를 문장으로 변용시켜 나가는 과정을 달기(達氣)로 구별하여 육경에서 얻은 도를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창작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육경은 정기(正氣)이고, 노자, 장자, 한비자, 전변, 추연, 열어구 등의 제자(諸子)는 비록 기는 있으나 사기(邪氣)로서 서한, 당, 송 이래로 정기를 얻은 사람은 드물다고 하여 전통적인 유학적 문학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더불어 당대 크게 문제가 된 고문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명나라에 이르러 왕세정, 이반룡 등을 대가라고 일컫지만, 육경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지는 모른 채 한과 당의 글을 표절하였다. 그리고 망녕되게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사마천과 반고의 글을 깎아 내었지만 그 가죽만 얻었고, 이백과 두보의 글을 훔쳤으나 껍데기만 얻었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여기에 휩싸여 그들의 의견을 추종한다. 이에 서원(徐遠), 전겸익(錢謙益) 등이 나와 그들을 나무라고 그 병폐를 고치려고 했지만, 육경의 본뜻을 깨치지 못하고 모방하거나 자구를 바꿔놓기만 했다” 고 당시, 고문운동의 병폐를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고문운동이란 “문은 반드시 진한(秦漢)이고, 시는 반드시 성당(盛唐)이다” 라고 주장한 운동으로서 그는 이 고문운동을 주도한 의고문파들은 육경의 정기를 얻지 못하고, 그 기가 허조(虛粗)한 상태로 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그는 의고문파에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방효유(方孝儒), 당순지(唐順之), 귀유광(歸有光) 등의 문장은 훌륭하다고 했지만, 사마천 등에 비교하면 역시, 아직 거리가 멀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창작함에 있어 그는 ‘삼병(三病)’ 과 ‘사폐(四弊)’ 를 주장하기도 했다. 즉 삼병이란 첫째, 과거(科擧)에만 힘쓰는 것, 둘째, 명청제자(明清諸子)들의 패관소설을 표절하여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 셋째, 송유(宋儒)의 어록체 문장을 주워 모아서 글을 엮어 내는 일 등을 말한다. 반면, 사폐란 첫째, 고법(古法)만을 숭상하다가 모방에 빠지는 것, 둘째, 새로운 경지를 창조하려다가 기이한 독단에 빠지는 것, 셋째, 고문만을 떠받들어 실용문에 어두운 것, 넷째, 실용에 맞는 글을 쓰다가 작가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삼병과 사폐에 대한 주장을 통해 그는 이러한 문장의 삼병을 통해 당시, 유행하는 문풍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예리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삼병은 당시 문단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면, 사폐는 창작을 함에 있어 창조주체로서 통변(通變)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글을 모방하는 일에 대해 옛날의 문장에는 모방이

없다. 모방을 하면 이미 문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하게 모방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적 온축을 통해 독창적인 내용을 참신한 표현 기교로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온축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문학을 열어가는 일을 그는 침감(沈酣)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즉 모방은 마치 사람들이 향기를 좋아하여 온 몸에 향주머니를 매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깊이 잠겨 몸으로 체득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는 가게에 머물러 있으면서 옷이나 혁대에 향주머니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오히려 온 몸에 향냄새가 배어 사람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모방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적 온축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학 세계를 펼쳐내는 것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참된 앎을 체득한다는 진지실득(眞知實得)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자. 우선 그와 교유했던 연암 그룹들과 관련된 시들을 보면 그의 시적 특성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을 만나러 용산에서 배를 타고 오르며

게딱지 만한 어부의 집에 가서 길을 물으려니
수양버들 휘늘어진 긴 강둑에는 밥 짓는 연기 피어 오르네
밝은 달은 멀리서 오는 나그네를 이끌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은 돌아오는 나룻배를 맞이하는구나
책을 맡겨 두고 구해온 한 동이 슬픔은 언제나 있으시겠지만
집을 살려 해도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으시겠네
하지만, 오직 열하기(熱河記) 세 권만은
천하에 선생의 이름 전해주겠지요

蟹莊魚舍問前川 楊柳長堤澹暮煙
明月來時攜遠客 亂山多處送歸船

借書常有瓶中酒 買屋曾無囊裏錢

惟有熱河三卷記 知君天下姓名傳(《金陵集》 권1 <同柳惠甫得恭 自龍山溯舟 訪朴監役趾源亭 居>)

이 시는 연암이 연경에서 돌아와 평계(平溪)에 있는 처남 지계(芝溪) 이재성(李在誠)의 집에 머물 때 유득공과 함께 이곳으로 찾아갈 때 쓴 작품이다. 당시 용산 주변의 어촌 풍경과 그 풍경의 일부로 자신들의 모습을 끼워 넣음으로써 풍경과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풍경처럼 묘사해낸 점이 훌륭하다. 또한, 비록 박지원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즐기는 모습과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해 시인은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당시 선비들의 교류의 한 태도를 엿보는 듯하다.

이덕무를 찾아가다

지난 해 이별할 때 수건을 적셨더니
이제 다시 만나보니 이미 몸도 가벼리는구나
지저귀는 제비, 나는 꼬꼬리는 하소연하듯 울어대고
떨어지는 꽃, 늘어진 버들가지는 사람을 꿈쩍 못하게 하네
거울 속 모습 어느새 반백이 다 되었고
책상 위에 놓인 인끈은 먼지만 쌓이는구나
친한 벗이라고는 성대중(成大中)만 남아 있지만
이곳 저곳에 모두 좋은 이웃이 있구나

經年離別欲霑巾 卽地相逢已饒春
啼燕流鶯如訴客 落花垂柳正關人
髮斑變却銅中面 印緣堆成案上塵
知己惟存成秘閣 巷南溪北好爲隣(《金陵集》 권2 <訪懋官>)

이 시는 이덕무가 사근도(沙斤道) 찰방과 경기도 적성 현감을 마친 뒤에 서울로 돌아와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우선 벗과 헤어졌다가 새로 만났는데, 벌써 좋은 봄날이 가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아쉬움 속에 제비나 피꼬리, 떨어지는 꽃, 늘어진 버들가지는 시인의 마음이 이입되어 시인을 마냥 슬프게 만들고, 온통 자신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만큼 가는 세월이 아쉬울 만큼 나이가 들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거울 속 모습은 어느새 반백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벼슬을 내놓고 아무 일이 없으니 당연히 벼슬살이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인끈에는 먼지만 풀풀 날릴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계절을 만나는 일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가져다 주고, 더구나 주변에 벗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더 시인은 슬픈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은 자신과 친한 이덕무가 남아 있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된다는 시인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인생을 살만큼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달관과 아직까지 남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들에 대한 고마움을 잘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정 박제가의 집을 찾아가다

슬과 안주 사이로 사람들 얼굴 어른거리고
한 여름이라 오렵송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네
푸른 물에 연꽃 곁은 고태사(高太史)의 숨씨인 듯
연못에 비안개 낀 건 미불의 재주인 듯
기북(冀北) 땅에는 좋은 말 없다고 하지만
용중(隆中)에 와룡 선생 있음을 그 누가 알랴
나룻배만한 작은 집에 한가로이 살고자
지난 해 새로 낙타봉 아래 집을 마련했구나

酒鱗人面影重重 六月風來五鬣松

碧水芙蓉高太史 墨池煙雨米南宮

徒言冀北無良馬 誰識隆中有臥龍

小屋如舟閒去住 去年新買玉駝峰(《金陵集》 권1 〈題楚亭幽居〉)

이 시는 초정 박제가가 3차의 연행(燕行)을 마치고 돌아와 낙산(駱山) 뒤쪽 어의동(於義洞)에 새 집을 마련했을 때 그곳을 방문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 집은 원래 남이 장군이 거처하던 곳으로 초정이 이 집을 사들여 연암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주 시회를 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릉은 이러한 시회의 모습을 술잔 사이로 얼비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술자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그곳에 있는 연못과 연꽃, 안개비 등의 모습을 옛날 중국의 화가들의 그림에 견주어서 그곳의 풍경을 신선들의 공간처럼 탈속화하는 한편, 그런 곳에 사는 박제가를 좋은 말과 와룡 선생에게 견주어 그의 능력과 인물됨을 기리고 있다. 역시, 연암 주변 인사들의 잦은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정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의 죽음 앞에서

젊어서 그대 알아 이제 늙그막에 이르렀구나
연암과 매탕(이덕무의 호)을 좇아 얼마나 다녔던가
일찍이 공명에도 분연히 뜻을 두었었고
만년엔 한유와 유종원의 글을 더욱 갈고 닦았지
패관소설 같은 건 애써 물리치는 걸 자기 일 삼았고
오랫동안 궁궐에서 임금의 사랑을 크게 받았지
영광되이 높은 벼슬에 올랐었지만, 남은 건 이름뿐이니
글을 지어 보내노라니 슬픔만 더해가네

少小識公今及衰 燕巖梅宕幾追隨

慨然嘗有功名志 晚又益工韓柳詞

力斥稗官爲己任 久居芸館受君知

榮於崇秩惟齋號 書送粉旌不作悲(《金陵集》 권4 〈成北靑士執輓〉)

이 시는 서얼 출신으로 영조 때 서얼통칭운동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부사에 이른 성대중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성대중은 영암 주변의 인물로서 상수학에 특히 밝았던 인물이다. 이 작품은 젊어서부터 그와 교류한 인연으로 연암과 이덕무 등 북학과 학자들과 교류한 인연과 서얼의 신분에도 벼슬에 오른 그의 재주, 문학적 능력 등을 기리고 있다. 이어서 그의 문학은 당시 유행하던 패관소설류의 잡기가 아니라 참된 문장을 갈고 닦는 데 힘씀으로써 임금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일을 적고 있다. 끝으로는 재주많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만사를 써야 하는 급류의 착잡한 심경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강산의 만폭동에서

깊은 골짜기로 지팡이 잡고 가다가
이곳에 이르고 보니 세상 만사가 하찮구나
오랜 못 속에는 용이 울어 늘 비 기운이 서려 있고
깊은 숲속에는 두루미 돌아오니 절로 가을 소리 나는구나
몸은 은하수에 가까워 잔질을 할 것 같고
땅은 번개를 맞았는 지, 도끼로 자른 듯 날카롭네
이곳에서 늙어 죽더라도 아무 한이 없을 것이로다
이번 여행은 참으로 내 평생 최고의 일이니까

幽深洞府拄筇行 到此方知萬事輕

古澤龍吟常雨氣 深松鶴返自秋聲

身參河漢行杯近 地遣雷霆削斧成

老死東南吾不恨 茲遊始信冠平生(《金陵集》 권3 〈萬瀑洞〉)

이 작품은 그가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 지은 많은 작품들 가운데 금강산의 대표적인 승경인 만폭동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우선 만폭동으로 들어가면서 금릉은 복잡한 세상 만사를 다 잊어 버릴 만큼 뛰어난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폭동 곳곳에 있는 깊은 웅덩이들에는 용들이 서려 있고, 숲속에는 두루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금강산의 비경과 신비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서 금강산의 맑은 물과 은하수를 연결시키고, 수많은 봉우리들이 마치 도끼로 깎은 듯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통해 금강산의 빼어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자신의 금강산 여행이 갖는 의미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릉 남공철은 명망있는 가문 출신으로서 72세에 영의정에 오르기까지 청요직을 두루 걸친 뛰어난 관료로서 그의 문학은 실제로 관료적 문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특히 그는 정조가 왕권 신장을 위한 탕평정치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체반정 운동을 일을 킬 때 그 목적은 노론 명문 자제들을 친위학자군으로 삼고, 조선 사상계를 산림과 유림 주도에서 중앙학계의 학자군과 정조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문풍의 변화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공철로 하여금 안의현감으로 있던 박지원에서 雅正之文으로 편질(編帙)이 그에 비할 만하고,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될 만한 글을 지어 바치도록 종용한 적이 있다. 이때 남공철은 명칭학(明清學)을 배척하는 문학서 한 두 권을 지어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연암에게 권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연암 주변의 인물과 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체반정 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16살부터 시작된 연암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는 그의 시문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관직 생활 내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벼슬을 하지 않은 다른 연암 주변 인물들과 달리 실제로 현실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 훌륭한 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교류한 인물들은 연암 박지원, 성대중,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원유진 등 노론계 북학파들이라는 점에서 그는 당대 최

고의 지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류 학자 강정일당의 행적과 문학을 살펴보자.

강정일당은 영조 48년(1772) 10월 15일에 제천 근우면 신촌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에 지극한 덕인이 있으니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 고 하는 태몽을 꾸고 정일당의 이름을 지덕(至德)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강재수(姜在洙), 어머니는 청강(淸江) 권서응(權瑞應)의 딸이다.

10대조는 세조 때 공신이며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한 강희맹(姜希孟)이고, 9대조는 의정부 우의정을 지낸 강귀손(姜龜孫)이며, 8대조는 의정부 사인(舍人)이었던 강극성(姜克誠), 7대조는 도승지에 증직된 강종경(姜宗慶)이다. 고조부 강석규(姜錫圭)는 지제교(知制敎)를 지냈고, 증조부 강계우(姜桂宇)는 진사였으나 조부 강심환(姜心煥)과 아버지가 모두 단명하여 가문이 영락하게 되었다.

정일당의 어머니는 조선중기의 성리학자 한수재 권상하(權尙夏)의 동생인 참판 권상명(權尙明)의 현손이니 정일당의 친가, 외가는 모두 명문가였다.

정일당은 성품이 곧고 조용하며 단정하였고, 기쁘고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여러 아이들과 놀지 않고 문지방 밖을 나가지 않았다. 가냘프고 병이 많았으나 여성의 본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면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약과 음식에 정성을 다하였고, 모부인의 바느질과 길쌈을 밤새워 도왔다.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매우 애통해 하며 삼년상을 치렀다.

정일당은 20세에 14세인 충주 선비 윤광연(尹光演)과 혼인하였는데 고려시대 윤관(尹瓘)과 윤언이(尹彦潏)가 그 선조이다. 윤광연의 조부 윤심진은 지중추부사를 역임했고, 부친 윤동엽은 미호 김원행(金元行)의 제자였다. 어머니 천안 정씨는 정여충의 딸로 호를 지일당(只一堂)이라고 하여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다.

시부모 장례에는 양식이 없어도 힘과 성의를 다하여 예법을 지켰다.

남편이 상복을 입은 채로 충청도, 경상도를 분주히 다니며 생계를 도모하자 올면서 학문을 권면하였다.

이를 시로 써서 남편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정부자(呈夫子)’이다.

제가 재덕(才德)이 없어 부끄럽습니다만

어려서 바느질은 배웠습니다.

참공부에 모름지기 스스로 힘쓰시고

입고 먹는 데는 관심 두지 마소서.

무오년에 과천으로 옮겨 살았는데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양식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간간히 죽기도 하였으나, “당신이 바른 것을 지키시면 사악한 것은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더욱 은인자중하여야 합니다. 장수하고 단명하는 데는 원래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남편을 위로하였다.

그 뒤 남대문 밖의 약현(지금의 중림동)으로 옮겨 왔다. 남편을 귀빈처럼 존경하고 모든 일을 물어서 처리하였다. 혹 남편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사랑채에 직접 드나들지 않고, 서간으로 연락해서 경계의 말을 하였다. 자식은 모두 5남 4녀를 낳았으나 모두 한 살이 되기 전에 죽어 한 사람도 장성하도록 키우지를 못하였다.

만년에는 광주부 대왕면(청계산 동쪽)에 산을 사서 3대 조상의 묘를 이장하였고, 형제와 친척들의 혼례와 상례를 대신 치러주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공을 자랑한 적이 없다.

윤광연의 회고를 보면 정일당의 내조의 공을 짐작할 수 있다.

나에게 한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여 勉勵하였고, 나에게 한 가지 허물이라도 있으면 걱정하여 문책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中正의 바른 자리에 서게 하며, 천지간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내가 우둔하여 다 실천하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말과 바

른 충고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겼다. 이 때문에 부부지간에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이 하였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때면 그대와 마주할 때는 神明을 대하는 것과 같았고, 그대와 이야기 할 때는 눈이 아찔하였다.(〈정일당유고 부록〉)

정일당 자신은 바느질을 해가며 학문을 익히고 시문에 뛰어나 당시에 문명이 높았다. 사람들이 그의 남편에게 글을 청하면 정일당이 대신 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직보가 시 한 수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자신의 작품을 일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또 글씨에도 능하여 홍의영 권복인 황운조 등의 필법을 이어 받았으며 특히, 해서를 잘 썼다.

1822년에는 큰 병으로 사흘 동안 기절한 후에 겨우 소생하였는데 이때 <답문편>, <언행록> 등 평생의 업적들이 모두 유실되었다고 한다.

만년에는 병으로 신음하다가 1832년 9월 14일에 61세로 타계하여 청계산 동쪽 대왕면 둔토리 선영에 안장되었다. 친척 강광주의 아들 흠규를 입후하였으나 나중에는 강좌의 아들 강전규가 가계를 이었다.

윤광연은 강정일당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인 1836년에 주위의 비난을 들어가면서 문집 <정일당 유고>를 간행하였다. 강정일당의 행장은 8촌인 강원회가 지었고, 묘지문은 형조판서를 지낸 홍직필이 지었고, 문집의 발문은 남편의 스승 송치규가 지었다.

<정일당 유고>에 실린 당대인들의 평가를 보면 정일당의 삶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정일당은 빼어난 제주와 세상에 없는 덕을 가지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요조숙녀라는 칭찬이 있었고, 시집간 후에는 함양하여 수행한 실상이 있었다. 가정에서는 엄숙한 것이 마치 조정과 같았다. 긴 밤 불 밝혀 부인은 바느질하고 남편은 책을 읽었다. 명직이 우리 학계에서 이름있는 학자가 된 것은 실로 부인이 계발시킨 힘 때문이었다..... 정일당이 이에 혹은 곁에서 서적을 섭렵하고, 혹은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십여 년간을 시종일관하였다.

유교의 13경을 다반사로 여기고, 순임금이 마음을 설한 것과 탕임금이 성품을 논한 것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고 강론하였다. 일찍이 주례, 이아, 좌씨춘추, 근사록, 격몽요결 등의 책을 좋아하였고, 세간의 저속한 책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만약 정일당이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가히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을 바른 길로 보도하였을 것이니.....아아 정일당은 성품과 정서의 바른 것이 시경의 관저에서 얻었고, 성실을 밝힌 학문은 중용에서 얻은 것이며, 안빈낙도하는 품성은 안희의 단표누항에 부끄럽지 않았다. 시에서 발휘된 것은 송대 성리학자들의 글에 견줄 만하였고, 반듯한 필체는 마음을 바르게 한 공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고, 편지에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정일당은 어찌 우리 가문의 장부로 태어나지 못하고 다만, 명직의 좋은 배필이 되고 말았는가. 명직에게는 다행이지만 우리 가문에는 불행이다. (강원회, 유인 정일당 강씨 뇌문(誄文))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시 2수)을 읽어보니, 비록 부인이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향수나 분가루 냄새가 없고, 초야에 은거한 학자의 뜻이 보이니, 규중 여인들의 사랑 타령이나 경치를 읊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비록 학문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선비들일 지라도 이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를 성찰하는 성심의 공부에 간절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무릎을 모으고 자리를 고쳐 앉게 되었다.....정일당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동서나 시누이들과 화목하였으며, 제사를 받드는 데 경건하고 빈객을 대접하는 데 근실하였고, 종손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건디기 어려웠을 터이나 평안히 여기고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없었고, 재물 때문에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학문에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다.(시 발문, 권우인)

정일당은 그 기상이 단정, 장엄하고, 거동이 자연스럽고 주밀하였다. 행실은 한 세상에 표준이 될 만하고, 문장은 능히 대가들을 따를 만하였

다.....재택을 겸비하고 지행을 함께 닦은 사람을 나는 오직, 정일당에게서 찾는다. 정일당 같은 사람이 어찌 여중군자에 그치겠는가. 실로 여성사에서 그 전례가 없는 분이다. (행장, 강원회)

정일당은 타고난 재능과 식견을 가지고 덕행으로 근본을 삼았다. 모든 문장에 과장하고 화려한 작태가 없으며, 수신하고 궁리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으니 박학한 원로 유학자라도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일당 유고 발문, 윤수경)

자고로 여성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정일당은 여성의 직분을 다하면서 성현의 경전에 침잠 연구하여 그 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닦는 요령을 설파한 것과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도가 정통 유교의 바른 길을 잃지 않았다.....정일당과 같은 사람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평생을 가난과 질병으로 보내었으니 실로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었음에랴. 진실로 수양의 정일함이 지극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는가. (후기, 송치규)

정일당은 영,정시대의 성리학자였던 임윤지당(任允摯堂)을 존경하고 호모하였다. 비록 늦은 나이에 학문을 시작하였지만, 성리학의 심오한 원리를 깨달았고, 심신 수양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다. 빈한한 환경에서도 여성의 몸으로 학문에 힘써서 3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하였으나, 생전에 이미 유실되었고 <정일당 유고> 한 권이 남아 있다.

<정일당 유고>는 1836년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가 1926년에 신활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원집이 36장, 글씨 2장, 부록 27장, 발문 3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시(詩)가 38수, 서(書)가 7편, 척독(尺牘) 82점, 서간 별지 2편, 기(記) 3편 제발(題跋) 2편, 묘지명 3편, 행장(行狀) 3편, 제문(祭文) 3편, 명(銘) 5편, 잡저(雜著)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와 尺牘 이외의 글은 대부분 남편을 위해 대신 지은 것임을 보면,

그녀의 문장이 남편 보다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일당은 남편의 스승 송치규에게 간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숙하였고, 윤지당을 스스로 스승으로 삼은 것으로 미루어 노론 정통 기호학파의 성리학에 맥을 대고 있다고 본다. 윤지당처럼 남녀의 성품이 차이가 없고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정진하였으며, 남편에게도 분발을 촉구하였다.

나에게 실덕(實德)이 있으면 남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실덕이 없다면 비록 헛된 명예가 있어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옥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돌이라고 말하더라도 옥에는 손해될 것이 없고, 돌이 여기에 있는데 그 돌을 옥이라고 말하더라도 돌에는 덕될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께서는 실덕에 힘써서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게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셔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데에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일당은 남편에게 시속과 무관하게 군자의 학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데 위인지학이 아니라 자기완성의 위기지학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정일당 유고>

<주례(周禮)>, <이아(爾雅)>,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근사록(近思錄)>,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의 책을 섭렵하고 궁리, 토론하여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유교 경전외에도 사서와 문학서 등을 두루 읽고 차기(筴記)도 남겼으나 전하지 않는다.

천지와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고 성품과 천명의 근원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중용>에 주력하여 계신(戒愼), 공구(恐懼)의 수양에 잠심하였다.

한편 자사의 책이

천년 동안 열고 이음이 많구나.

채득하여 홀로 섬에 치우침이 없고

쓰고 행함에 어긋남이 없으니

처음에 능히 경계하고 삼가야
 마침내 중화를 이룰 수 있도다.
 도에 달하는 데는 삼덕이 관문이니
 정성스럽도다! 그 이치에 무엇을 더하리오 ('중용을 읽음')

<중용>을 읽은 감회를 묘사한 시다. 비록 시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학문적인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중용>의 계구, 신독의 수양을 통해 통하여 중화의 경지에 이를 것으로 믿고 정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천명지성(天命之性)’에 대하여는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란 자사(子思)가 도덕의 근원을 극도로 말한 것이다. 계구함을 가르쳐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공부하게 할 곳을 알게 하신 것이지 공중에 뜬 모호한 소리가 아니다”고 하였다.

성인이 되는 데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여 “하늘이 부여한 성품에는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 부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태사와 태임과 같은 성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으면 이는 자포자기한 사람이다.”고 하여 남성에 못지않은 수행의 의지를 보인다.

성(性)과 경(敬)을 도(道)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고 중시하였으며 특히, 경으로 마음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의 기운이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심성 수양을 하면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고, 바느질을 하면서도 집중하는 수련을 스스로 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처음에는 마음이 들떠 흔들렸으나 점차 깊이 익숙하여 만년에 이르러 겉과 속이 태연한” 경지에 이르렀다.

정일당의 시에는 이런 경지를 표현한 것이 여러 편 있다. 달 밝은 밤에 뜰을 거닐며 마음의 밝은 경지를 보고 활연히 성정의 본래 모습을 깨닫기도 하였고, 성현들이 전수한 도의 실체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마치 밝은 달이 물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였기에 정일당은 평시에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안분자족(安分自足)할 수 있었고, 죽음에 임하여도 한 점 착란됨이 없

을 수 있었다.

여생은 다만 사흘 남았는데
성현될 기약 저버려 부끄럽네
늘 증부자(曾夫子)를 사모하였으니
반듯하게 자리 바꿀 때(죽을 때)를 마치리

정일당은 과연, 3일 후에 작고하였다. 살고 죽음이 모두 각자의 분수이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스스로 자기의 도리를 다하였는가 하는 것만 근심하여야 한다던 정일당은 자신의 죽음도 이와 같이 단정하게 맞았으니 보통의 여성으로는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할 존심입명의 경지이다.

정일당의 문학세계는 어떠한가 보자. 정일당의 문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詩)이다. 38편의 시는 오언절구(五言絶句) 24편, 오언율시(五言律詩) 4편, 칠언절구(七言絶句) 7편, 사언시(四言詩) 3편으로, 대개 절구가 많고 특히, 오언절구(五言絶句)가 많다. 초기의 작품들은 대체로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 관한 내용이 많고, 후기의 작품들은 남편을 대신하여 증답(贈答)하거나 찬양·송축하는 내용, 그리고 아래 사람들에 대한 훈계의 내용들이 많다.

시어머니 지일당(只一堂) 천안 전씨(天安全氏)가 한시에 조예가 깊었고, 본가인 진주 강씨(晉州姜氏)도 10대조 강희맹(姜希孟) 이래 시와 문장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으므로, 이러한 양가의 전통이 정일당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시는 대부분 학문에 대한 집념, 심성 수양, 자신에 남들에 대한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 속의 관조, 도학적 달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의 시에 흔히 나타나는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인 시는 없다. 진리를 탐구하고 수학에 정진하는 도학군자 다운 자기 성찰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밤 깊어 못동물 쉬고 있는데
뜰은 비어 흰 달이 더욱 밝구나.

마음이 씻은 듯 맑으니
환하게 밝은 성, 정을 보겠네. ('밤에 앉아서')

이는 52세 때 지은 시이다. 고요한 밤의 정밀 속에서 밝은 달빛을 벗하면서 홀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원숙한 경지를 보인다. 성(性), 정(情)을 환히 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심성 수양의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봄은 와서 꽃은 정녕 만발하지만
세월은 가니 사람은 점점 늙네
탄식하여 장차 무엇하리
다만, 한 가지 착한 도리만 하면 될 것을(原韻)

봄은 와서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세월의 안타까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탄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의 의지로 허무함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정일당의 문학세계의 특징이자 삶의 특징이다. '제석감음'에서도 동일한 심정을 읊었다.

좋은 세월 한 일 없이 헛되이 보내고
내일이면 어느덧 쇠한 살이 되네
한밤중 비탄이 장차 무슨 소용이라
또한 여생을 수양하며 보낼 뿐

'청추선'에서는 초가을 매미소리를 들으며, 물아일체의 경지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온갖 수목들 가을 기운을 맞는데
매미소리 석양에 어지럽네
사물의 이치에 깊이 잠기어

수풀아래 홀로 바장이네

한편, 정일당의 산문은 문체가 질박하고, 도학적인 취향이 드러난다. <만성재기(晩醒齋記)>는 홍종선의 재실 기문으로 정일당이 남편을 대신하여 쓴 글이다. 재실의 주인에게 경(敬)을 간곡히 권유하는 내용이다.

“공경이란 한 마음을 바르게 하여 백 가지 사악함을 이기며, 동정과 시종을 꿰뚫어서 마침내,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을 통렬히 비출 수 있으니 주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 고 하였다.

<탄원기(坦園記)>는 탄재(윤광연)의 정원인 탄원의 이름 유래를 서술하고 토양이 박하고 수목이 구불구불하며 가옥이 협소한 탄원이라도 주인이 평탄한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실천하면 황량한 계곡과 궁벽한 골짜기도 모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속에서 벗들과 소요자적하며 참된 즐거움을 구하라고 권유하였다.

“주인이 평탄한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실천하니 황량한 계곡과 궁벽한 골짜기가 험악한 것이 될 수 없고, 좁은 집과 가시 사립문이 협소할 수 없다. 바야흐로 장비를 갖추어 말을 타고 곧장 진행하여 인의의 경지로 달려 나아가 보라. 그 투박하고 구불구불하며 협소하고 두렵하면서도 뾰족한 것들이나, 그윽하면서도 기울어진 것이 모두가 평탄한 길 아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그 뜻이 호탕할 뿐 아니라 문학적 표현으로도 매우 아취가 있다.

그밖에 돌이 되기 전에 죽은 막내딸을 선산 자락에 묻고 부모의 곡진한 정을 절제하여 그린 <상녀에지(殤女瘞誌)>, 어린 아이(李敬鉉)에게 조상의 유품인 벼루의 의미를 일깨우고, 벼루의 삼덕(三德, 貞·靜·重)에 가탁하여 수양과 학문에 분발할 것을 당부한 <연설시이동자불억(硯說示李童子弗億)> 등도 간명한 문체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훌륭한 산문들이다.

강원회(姜元會)는 아래와 같이 정일당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아! 性情의 바른 것은 시경(『詩經』)의 관저(關雎)에서 얻은 것이고,

성실을 밝힌 학문은 중용(『中庸』)에서 얻은 것이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생활은 안회(顔回)의 단사누항(簞瓢陋巷)에 부끄럽지 않았다. 시(詩)에서 발휘된 것은 성리학의 명문에 넣을 만하고, 은구(銀鉤)의 필체에서는 심성 수양의 경건(敬虔)함을 알 수 있으며, 서간문(書簡文)에서는 학문 성취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정일당은 글씨에서도 또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시조부였던 윤심진(尹心震)외에, 황운조(黃運祚), 홍의영(洪儀泳), 권득인(權復仁) 등의 글씨를 많이 모사(模寫)하고, 송치규(宋穉圭)와 송환기(宋煥箕)의 반행서(半行書)를 배우기도 하여 강건하고 단정한 필법을 완성하였다.

정일당의 글씨는 자획이 곧세고 바르며, 순수한 고풍이 있어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숙연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사후(死後)에 남편에 의하여 필첩(筆帖)으로 만들어 졌으나 유실되었고, 문집 부록에 판각된 “靜一堂” 3자와 “庚寅冬姜氏” 5자가 전부이다.

그밖에 정일당은 예학에도 깊은 이해를 하였다. 예(禮)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므로, 반드시 먼저 어떤 것이 예이고 어떤 것이 아닌 지를 밝힌 후에 자기의 사욕을 과감히 끊고 천리를 실천하면 정도(正道)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매우 까다로운 예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나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도 힘을 썼다.

이상에서 대왕마늘에 연고를 두 문사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금릉은 벼슬로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현실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연암 등 노론계 북학파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지와 삶의 자취를 시에 담았다.

강정일당은 여성으로서 독보적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고 있는 인물로 문학을 문자만의 영역으로 협소화시키지 않고, 심성 수양과 도덕적 실천과 하나로 합치하여 여성문학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여성의 자아

실현의 모범을 보였다.

이들의 탁월한 정신세계와 문학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이 지역 사람들의 대표적 지성으로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2) 대왕마을의 구비문학

이 지역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문학은 전해 오는 설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설화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 몇 편과 탄천과 달래고개에 얽힌 이야기 정도만 전한다.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래된 지명과 자연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지역민의 삶과 정서의 편린을 볼 수 있다.

이 지역 구비설화는 몇 편 안되지만 크게 분류하면 지명에 관한 이야기, 자연물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명에 관한 이야기는 그 형상을 따서 붙인 경우와 관련된 사건이나 인접한 사물 등에 따라 붙인 경우가 있고, 자연물에 얽힌 이야기는 주로 지역민의 민간신앙이나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세밀한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형상으로 지명 붙인 이야기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고유 지명도 많은 부분은 형상을 따서 붙인 것이다. 범 범바위, 장골(깊고 길다), 황새머리들, 쪽박산, 거북바위, 명석바위, 마루들, 질마바위, 토끼마당 등 술한 지명이 있다. 이러한 지명 유래담을 통해 자연과 밀착되거나 일치된 삶을 영위한 옛 사람들의 소박한 정서를 읽을 수 있다.

〈 얽힌 사연으로 지명이나 자연물 이름 붙인 이야기 〉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나 연관이 있는 사물과 관련하여 지명을 붙인 사례가 많다. 작은 시내가 있어 잣내들이라거나 말무덤, 담박골(담박), 와실(기와구은 곳), 죽바위(모습이 드러나면 흉년이라 죽을 먹게 된다.), 새명당, 봉화뚝산, 탐산, 인능산, 배매산(배를 매어 두었다)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탄천에 얽힌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삼천갑자 동방삭이 있었다. 동방삭이 너무 오래 살아서 천상, 천하를 막론하고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상에서 동방삭을 잡아가기 위해 계책을 꾸밌으나 워낙 장수한 사람이라 방법이 없었다.

옥황상제가 나서서 동방삭을 잡기로 결심하고 사자를 탄천 부근으로 보냈다. 사자는 옥황상제가 지시한 대로 탄천에서 솥을 씻고 있었다. 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동방삭이 왜 솥을 물에 씻는 지 물었다. 솥이 희어지게 하려 한다고 하니 동방삭이 자신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솥을 씻어 희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크게 웃었다.

사자는 그가 곧 동방삭임을 알아차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생포하였다. 곧장 옥황상제에게 데려가니 마침내 동방삭의 생명이 끝났다.

사자는 지상에 다시 내려가 금은보화를 하사 받고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로 탄천은 ‘솥내’ 라고도 일컬어진다고 한다.

또 다른 탄천 유래담이 있다. 이 탄천 부근은 온조대왕 이후 기마병들이 주둔하던 곳이라고 한다. 군사가 철수한 이후에도 말 먹이를 끓이는 데 사용하던 솥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 탄천이라 불렀다고 한다.

(2) 달래네 고개에 얽힌 이야기

청계산 자락에 달래네 고개가 있는데 고개 이름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달아’와 ‘달오’라는 남매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살아가고 있었다. 달아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여름날도 달아는 시냇가로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달오는 소 먹일 꼴을 베러 청계산으로 올라갔다.

달아가 열심히 빨래를 하는 동안 달오는 꼴 한 짐을 다 베었다. 달오가 누나를 보러 시냇가까지 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듯이 쏟아졌다. 동생을 보고 반가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달아의 모습은 비에 흠뻑 젖어 몸매가 다 드러난 여인의 모습이였다. 당황하여 돌아선 달오는 솟구쳐 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순간, 달오는 옆에 있는 돌을 들어 자신의 남성 상징을 내리치고 말았다.

달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달아는 죽어가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자신의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돌의 무덤을 길가에 만들어 주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수십 년이 지나매 나무와 풀이 자라 무덤이 폐허같이 되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하나씩 던져 주어 서낭당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3) 청계산 망경대

청계산의 옛 이름은 청룡산(靑龍山)으로 이 산정에서 청룡(靑龍)이 승천했다고 전한 데서 생긴 이름이다. 망경대는 청계산에 있는 석대의 이름이다. 망경은 원래 만경(萬景)이라 하여 이 곳에 오르면 눈 아래 만경(萬景)이 전개된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었으나 조윤이 오른 이후로 망경대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운(趙胤)이 이 곳에 와서 서울이었던 개성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망경대(望京臺)가 되었다고 한다. 조운이 온 것은 평양 조씨가 청계사(淸溪寺) 절에 산을 70정보를 떼어 주고 원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양 조씨의 후손들이 청계사 앞에 지금부터 7-8년전에 큰 돌을 세우고 사연을 새겨 시조부터 7세까지를 모시는 신당을 만들었으며, 매년 제향을 지낸다고 한다.

탄천의 동방삭이 이야기와 달래 고개 이야기는 이 지역에 국한된 지역 설화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지명이 동일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붙여져서 이 지역의 이야기로 구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경대 이야기는 과천에서 수집된 이야기이다. 과천 지역에서도 청계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더러 전하는 것이 많으니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로 분리하기도 어렵다.

〈 인물 이야기 〉

① 조건

조건은 고려말의 충신으로 조준의 동생이다. 고려가 망하자 조건은 청계산으로 은거하였다. 조건과 이성계는 친구 간으로 조건은 장관, 이성계는 군사령관이었다.

하루는 이성계가 방원과 함께 찾아갔다 방원이 문을 열어달라 하였으나 조건은 내다 보지도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이성계가 아들인 방원을 옆으로 비키게 한 후 “자네 친구 이성계일세, 문 좀 열게” 라고 하자 비로소 문을 열어 주었다. 문안으로 들어선 이성계가 조정에 나올 것을 권하였으나 조건은 묵묵부답으로 대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여막을 나온 이성계는 친구를 위하여 청계사 절 옆에 큰 집을 지어주고, 여막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조건은 양주로 도망을 하고 말았다.

조건은 청계산에 있으면서 매일 산위에 올라가 서울(개성)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왕씨가 이씨를 물리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나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봉우리를 망경대라고 후세 사람들이 불렀다.

양주로 도망간 후 이방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건을 그대로 두면 불리하므로 사람을 시켜 죽여 버리게 하였다.

조건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비석을 세우는데, 비문을 고려충신조모지묘(高麗忠臣趙某之墓)라고 쓰라고 하였다. 자식들이 생각해 보니 고려충신이라고 쓰면 곧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므로 개국공신이라고 비문을 해 세웠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하늘에서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서 비석의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충신의 이야기는 이 지역에 대대로 전해 오면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조상의 유언을 지키지 않으니 그 징계가 온다는 내용으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한 조상에 대한 효가 은연 중에 강조되어 있다.

〈 민간신앙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 〉

한편으로 이 지역의 민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① 심곡동 느티나무

심곡동에는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고목이 있어 유적 중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느티나무로 예전에는 단오절에 그네를 매어 타기도 하

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금기가 있다. 즉, 이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흉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② 심곡동 우두물

심곡동 361에 조선시대부터 있던 우물인 이 우두물은 아무리 퍼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전한다.

③ 사송동 회화나무

사송동 대 533-1에 있는 이 나무는 송현마을의 수호수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도 명절에는 음식을 놓아두고 간단한 의식을 한다.

④ 고등동 산신각

고등동 산 5-1에는 목조물 산신각이 있는데 기도하면 효험이 있는 산신도량으로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⑤ 고등동 도당고개

고등동 도당재 산고개는 옛날에 산신제당이 있던 고개라고 한다.

⑥ 고등동 우물터

경주 김씨네에서 이 우물 때문에 역적이 날까 두려워 덮어 버렸다고 한다.

〈 금기에 관한 이야기 〉

금기에 관한 이야기로는 다음 1편이 전한다.

고등동 절터 이야기이다.

탑산골에 절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묘를 쓰려고 하였다. 지관이 돌을 파지 말고 묘를 쓰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을 파냈더니 돌 아래에 있던 금붕어가 죽어서 묘를 쓰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금기를 어겨 명당의 효험을 잃은 이야기다. 이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이야기인데 명당에서 산 금붕어가 있다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독특한 형태이다.

<박 순 임>